

# 수치 감정의 프레임으로 본 쿷시의

## 『치욕』\*

김 영 미 · 이 명 호

### [국문초록]

수치심은 우리 ‘존재의 깊은 차원’을 건드리는 ‘영혼의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의 가치 부정이다. 본 연구는 수치감정의 프레임을 통해 그의 후기작에 속하는 『치욕』을 분석한다. 주인공 데이비드 루리의 내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치감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의 수치 경험은 학생과의 섹스 스캔들로 대학에서 불명예 퇴출된 데 있지 않고 딸의 농장에서 일어난 강간사건과 그 여파로 드러나듯, 딸을 지켜내지 못한 백인가부장의 무력감에 있다. 이 무력감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이후의 현실인 변화된 인종관계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그의 수치심은 새로운 현실에 대한 그의 부정적 관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관습적인 수치 프레임으로 여성의 강간을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변화한 흑백관계를 개인과 자아를 넘어서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딸, 병들고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들도 위로와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의사 베브를 통해 그는 소유와 특권을 넘어서는 삶의 방식, 사랑의 방식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그는 이 새로운 인식을 통해 수치심을 극복하고 주변의 삶을 긍정하게 한다. 이와 같은 주인공의 내면 변화와 삶의 긍정은 변화하는 남아공의 미래에 대한 작가의 긍정을 함축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주제어 :** 쿷시, 『치욕』,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이후 인종관계, 수치, 백인가부장의 무력감

\* 이 논문은 2012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120722)

## I. 들어가며

수치 감정은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영혼의 병”(Sivan Tomkins 133)으로 일컬어지는 감정이다. 루쓰 레이스(Ruth Reys)에 의하면, 죄책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행위와 관련된 감정이라면, 수치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가와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재인용 Daniel Just 895). 그런 의미에서 수치는 우리의 “존재의 깊은 차원”(Daniel Just 895)을 건드린다. 수치심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의 부정이다. 톰킨슨의 말을 빌면, “자신이 밟아벗기고 패배당하고, 소외되고, 존엄이나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133)이 바로 수치심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수치심을 유발하는가? 이에 대한 이론가들의 답은 다양하다. 프로이트는 “자아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델이나 이런 모델 역할을 수행하는 타자의 시선에 자신의 열등한 부분이 드러날 때”(이명호 재인용 329) 수치심이 유발된다고 한다. 코허트(Kohurt)와 카우프만(Gershen Kaufman) 같은 이는 아이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할 때 자기 존중과 같은 건강한 감정을 형성하지 못하고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재인용 Erica Johnson 56).

이들 이론가의 지적처럼 자아이상으로 인해, 혹은 부모의 공감과 지지의 결핍으로 인해 수치심이 유발된다고 할 때, 그것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치심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유발되기도 한다. 예컨대 개인이 속한 문화나 사회의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로 인해 특정 집단에게 수치심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몸을 수치스러운 것,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인종차별주의는 흑인을, 식민주의는 피식민지인을 수치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그들의 내면에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심어주게 된다. 최근 수치에 대한 연구 중에서는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식민주의가 어떻게 피억압자에게 수치심을 내면화시켜왔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데이비드 콧시(David Coetzee)의 작품에 대해서도 수치와 연관시켜 논의한 글이 있어 눈길을 끈다. 티모시 뷰에즈(Timothy Bewes)는 탈식민적 수치를 논한 최근 저서 (*The Event of Postcolonial Shame* 2010)에서 현대 작품 중 콧시의 작품만큼 “수치 감정을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룬 작품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137), 콧시의 글쓰기에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문제와 수치감정이 중요한 일부를 이룬다”고 말한다(138). 그런데 뷰에즈가 콧시의 수치심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주인공 인물의 수치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작가로서 콧시가 느끼는 수치심을 의미한다. 즉, 현실을 변화시키는 문학의 힘에 대해 늘 회의적이었던 콧시는 자신의 글쓰기 작업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작품 속에서 표현해왔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수치심의 프레임으로 콧시의 소설을 논하려고 하지만, 뷰에즈의 논의와는 방향이 좀 다르다. 본 논문은 콧시의 후기작에 속하는 『치욕』(*Disgrace* 1999)에서 주인공 데이비드 루리(David Luire)가 경험하는 수치의 감정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가 경험하는 수치 감정의 내용과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하면서, 이를 통해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아파르트헤이트이후 체제와 백인남성지식인의 곤경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무너진 지 5년 후에 출간된 이 소설은 변화가 격심하게 일어나는 사회상황을 배경으로 백인 특권층의 엘리트 남성이 겪는 곤경을 극화하고 있다. 소설의 첫 행은 행복감에 대한 그의 표현으로 시작되지만, 곧이어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왕』의 마지막 구절,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언급되는데, 이는 그의 그 행복한 상황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암시를 독자에게 준다. 그리고 이 암시는 곧 사실로

확인된다. 소설은 그의 짧은 행복과 긴 추락의 삶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그의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흑인 여제자와의 성적 추문이지만, 기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의 삶은 권력과 힘을 잃어가는 것으로 제시된다. 소설은 지식인으로서의 그의 삶, 백인 남성으로서의 그의 삶이 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변화로 인해 점점 축소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소설에서 그가 놓인 사회적 환경의 핵심은 변화이다. 소설에서 설명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등장인물들의 의식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서 언급되는 시대의 특징은 변화이다. ‘새 체제’ ‘새 세계’라는 언급은 사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우리는 그 변화가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의 변화임을 알고 있다.

이 변화는 그에게 긍정적으로 경험되지 않고 있다. 대학 사회에 속해있는 그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변화는 대학의 구조조정이다. 대학은 “지적활동의 중심지로서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생산하는 핵심적 현장”(바우만 212)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실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그 재편의 결과 중 하나가 바로 학과의 통폐합이다. 그는 낭만주의 문학을 전공했으나, 그의 전공 학과가 폐지되어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전공은 1년에 한과목만 강의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는 학문이 거세되었다고 느끼며(emasculated institution of learning 4), 자신은 그 속에서 맞지 않다(out of place 4)고 생각한다. 자신과 자신을 비롯한 동료들을 사라진 시대에 남은 옛 유물 같은 존재라고 느낀다. 말하자면 종교가 지나간 시대의 성직자(clerks in a post-religious age 4)에 자신들을 비유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강의에 열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과목은 물론이고 문학 강의에서도 열의를 느끼지 못한다. 그는 학생들이 수업에 전혀 관심 없고 멍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지만 그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열의를 그는 가지지 못한다. 그는 그저 의무감에서, 생계를 위해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내면은 대개 무덤덤한데, 그런 그의 내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에게 그나마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은 여성과의 관계, 그의 남성적 욕

망의 충족과 바이런 연구 및 집필이다. 그의 의식이 외부가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성격적인 욕구와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라는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이국적인 세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남아프리카적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는 니체가 경멸적으로 묘사한 ‘최후의 인간’ 즉, “가련한 안락 외에는 더 이상 삶 속에서 아무런 야망을 가지지 않은”(테일러 재인용 13) 그런 현대인의 모습으로 보인다. 혹은 바우만이 말한 포스트모던적 개인으로 보이기도 한다. 바우만에 의하면 대규모 산업 노동력과 대규모 군사력을 통해 질서를 구축하던 근대사회에서는 규범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사람들은 “감각추구자, 감각 수집가로 훈련된다”(367)고 한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감각을 추구하고 늘 새로운 경향을 탐하는 성향이 갈수록 강력하고 깊어진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루리가 놓인 사회의 성격이 포스트모던 하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지만, 그가 드러내는 핵심적인 성향이 감각의 추구, 성적 욕망의 추구라는 점에서 포스트모던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듯 근대적/포스트모던적 인간형의 모습과 겹치는 그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정체성의 위치를 말하자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 백인 남성 이성애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그의 성향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의 부재, 개인의 학문적 집필과 창작에 대한 몰두, 여성에 대한 성적인 충족의 추구를 통해 드러난다. 그는 사회의 변화를 못 마땅하게 여기지만, 그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사고하거나 변화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해 볼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무력한 지식인이다. 그가 전공분야의 책을 세 권 출간했지만 이 책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그가 현실의 문제에 대해 첨예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그는 학생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들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창작 활동 역시 그다지 신통하지 못하다. 그가 끝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과 그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무기력한 삶에 활력과 기쁨을 주는 것은 오직 여성과의 성적 관계이다. 결혼에 두 번 실패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그는 매주 목요일마다 창녀 소라야(Soraya)와 만나 성관계를 나눈다. 소라야와의 관계는 그의 여성 취향과 여성에 대한 그의 태도를

잘 드러내며 그의 이런 취향과 태도는 자신의 과목을 수강한 학생, 멜라니 아이삭스(Melanie Isaacs)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소라야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우선 그가 젊고 이국적인 여성을 좋아함을 알 수 있다. 갈색피부를 가지고 무슬림일 수도 있다고 묘사되는 소라야는 다른 인종의 여성인 것으로 보이며, 나이는 그의 딸 또래이다. 둘째, 그는 소라야가 열정을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고 “조용하고 유순하며”(quiet and docile 1), 그가 말하면 얼른 알아듣고(a ready learner 5), 그에게 순종적이며(compliant 5) 도덕적(moralistic 1)인 점을 좋아한다. 그는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정숙한 전통적인 여성상을 선호하는 것이다. 셋째, 그녀를 성적인 대상 내지 감정적으로 그를 받아줄 대상으로만 여기지, 그녀의 개성이나 그녀 자신의 주체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그녀와 삶을 나눌 의향은 없다. 즉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 성적이고 정서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데 만족하지, 더 이상의 시간을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공간이 그녀의 존재로 인해 침범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여성에 대한 그의 태도는 전형적인 남성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성과 깊은 인간적인 관계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고 오직 남성적 욕망의 충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리고 순종적이며 성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여성을 선호하는 태도는 남성이 오래 유지해온 관습적인 태도이다. 실상 여성과 관련해서 그의 핵심적인 기질은 ‘바람둥이’(a womanizer 7)이다. 어릴 때부터 엄마, 이모들, 누이들에 둘러싸여 자라 여성에게 익숙하며, 여성들의 호감을 사는 외모를 지녀 여자들로부터 원할 때마다 사랑을 얻을 수 있었던 그는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가진 난잡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말한다.

그는 간절히 난잡함에 휩싸여 살았다. 대학 동료들의 아내들과 관계를 가졌으며, 술집이나 해안가, 혹은 클럽 이탈리아에서 여행객들과 잤으며, 창녀들과 같이 잤다.

He existed in an anxious flurry of promiscuity. He had affairs with the wives of colleagues; he picked up tourists in bars or the waterfront or at the

Club Italia; he slept with whores. (7)

한 여성과의 충실하고 정결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충동에 따라 여러 여성들과 이런저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의 모습은, 성 추문이 생겼을 때 학생들이 그를 가리켜 한 말 “카사노바”라는 인물의 모습에 가깝다. 그의 이미지는 그가 연구하는 바이런과 바이런의 시에 묘사된 루시퍼의 이미지와도 겹친다. 수많은 여성 편력으로 유명했던 바이런, 그리고 “원리가 아니라 충동에 따라 행동했다”(33)고 묘사되는 루시퍼처럼 그 역시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하고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것이다.

멜라니와 그의 성적 추문 사건은 바로 그의 이런 사적인 성향을 타인의 시선에 노출시키는 사건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규범과 윤리에 어긋나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 실현을 위해 자신이 가진 힘과 지위를 이용한 부도덕성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사건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건은 충분히 ‘수치 감정’을 유발할지 하다. 그와 허물없는 친구 사이로 지내는 두 번째 전처인 로잘린느(Rosaline)는 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하는데 이를 보는 독자도 전적으로 로잘린느에게 공감하게 된다.

그와 멜라니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의 문제뿐 아니라, 선생으로서의 윤리 의식, 타인종 여성에 대한 백인의 착취의 유산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중첩된 사건이다. 인사청문회가 열렸을 때 인사위원 중 한 명인 라술(Rasool)이 이 사건을 “인종착취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이다. 비평가 루씨 그래햄(Lucy V. Graham)도 이 점에 주목하여, 이 소설은 “수세기동안 존재해 온 백인에 의한 흑인 여성의 숨겨진 성적 착취를 제시한다”(437)고 말했다. 멜라니와의 관계에서 특히 문제적인 장면은 그가 그녀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 그녀가 “속속들이 원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거의 “강간”과도 유사한 관계를 맺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그는 “토끼의 목을 물어뜯는 여우”로 비유되고 멜라니는 포기한 듯 물어뜯기는 ‘토끼’에 비유되고 있는데, 이는 이것이 성적 폭행의 의미가 있음을 함축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멜라니와의 관계를 욕망의 차원에서만 해석한다. 그는 자신의 사건을 “욕망의 권리”(the rights of desire 89)에 대한 것이라 말한다. 그에게 있어 욕망은 “작은 새들조차 몸을 떨게 만드는 신”(the god who makes even the small birds quiver 89)이자,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모든 분별력을 초월해 서로의 팔에 안기게 하는 힘”(194)으로서, 자기 삶의 중추이다. 그는 “실현되지 않은 욕망”(unacted desire 69)은 “요람 속의 갓난아이를 죽이는 것”(murder the baby in the cradle 69)보다 견디기 힘든 것이라 보며, 욕망이 없는 삶보다 총살형을 택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듯 남성적 욕망의 추구를 삶의 중추로 보기 때문에, 교육자로서의 도의적인 윤리를 넘어서 욕망, 흑인 여성에 대한 백인 남성의 성적 착취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욕망에 대해서도 그는 큰 부끄러움이 없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한 개인에게 그가 가한 폭력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잘못은 멜라니에게 육체적 폭력을 가한 일이 아니라 멜라니의 출석과 성적을 조작한 일이다. 기실 멜라니와의 일은 그에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최초의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와 더불어 자란 전형적인 백인 특권층 남성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 말이다. 사실 멜라니와의 일은 그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삶의 방식, 여성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회개와 고백을 강요하고 자아의 개조를 요구하는 인사청문회가 더 문제적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스스로에 대해 당당하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성추문과 학교로부터의 퇴출은 그에게 있어 ‘수치’의 경험이라기보다 엄밀히 말해 ‘추락’(fall)의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리고 그 사건은 변화한 체제 속에서 백인 특권층 남성의 위치가 취약해졌음을 드러낸다.



### III. 백인남성가부장의 수치경험

그에게 수치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은 딸의 강간 사건이다. 자신의 추문 사건에도 별로 자아의 동요를 느끼지 않던 그가 딸의 사건을 겪으면서는 무력감, 분노, 절망감에 휩싸인다. 그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그에게는 마지막 자부심 같은 존재였던 딸이 흑인의 성적 폭력으로 범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 앞에서 자신이 무력했다는 점 때문이다.

딸 루씨의 삶은 여러모로 그와 대조적이다. 그가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적인데 반해 루씨는 동성애자이다. 그가 도회지 지식인이라면 루씨는 농촌에 사는 개척자, 농부로 묘사된다. 히피생활과 공동체 생활 등 삶의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 마침내 농부로 정착한 루씨에 대해 그는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진다. 부모들보다 어찌면 “역사”(history)가 그녀의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61), 루씨의 삶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에 더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 그녀는 남/녀, 흑/백, 고차원적인 삶/저차원의 삶, 인간/동물 간의 위계적 이분법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달리, 이런 구분이 없는 단일한 차원의 삶을 지향한다. 그녀는 오래된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달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에 손색없는 독립적이고 건강한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루씨의 삶의 현장은 어쩌면 그가 새로운 모색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인다. 물론 그는 자신의 기질과 욕망, 자신의 자아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는 강요된 자아개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 그는 자신이 약화된 자아를 추스르고 “힘을 비축하기 위해”(to gather himself, gather his forces 121) 루씨의 농장에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루씨가 원하는 동물복지 운동의 도우미 역할도, 자신을 더 좋은 인간으로 만든다든가 자아를 더 개선시킨다는 전제가 없다면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루씨에게 어떤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새로운 삶에 묻힌 단단한 여자. 좋다! 만약 이것이, 이 딸이, 이 여인이 그가 뒤에 남기는 거라면, 그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A solid woman, embedded in her new life. Good! If this is to be what he leaves behind - this daughter, this woman - then he does not have to be ashamed. (62)

정말 루씨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녀가 영원히 아이로 남고 영원히 순진하고 영원히 그의 것이 되라는 건 아니다... 그녀는 그의 두 번째 구원이 된다. 다시 태어난 그의 청춘의 신부...

What does he really want for Lucy? Not that she should be forever a child, forever innocent, forever his - certainly not that.... She becomes his second salvation, the bride of his youth reborn. (86)

그의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루씨의 삶은 그에게 전혀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권층의 백인 남성으로서 자기중심적이고,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기며 벗어나 우정에 대해 회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인간이 가진 특권의 일부를 동물과 공유하는”(74) 일을 하는 루씨와 베브 쇼(Bev Shaw)의 일을 돕는다. 그리고 새 국가의 농지개혁 정책으로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는 흑인 농부 페트루스(Petrus)의 농사일 보조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페트루스의 보조 역할에 대해서는 거기에 담긴 “역사적 짜릿함”(historical piquance 77)이 좋다면 서 기꺼이 맡겠다고 한다. 베브 쇼의 경우는 일단 그녀의 외모부터 그의 미적 기준에 어긋나며 그는 그렇게 “몸을 가꾸지 않는 여자를 싫어한다”(72)고 진술한다. 하지만 “괴로워하는 아프리카 동물들의 짐”(84)을 덜어주는 일을 하는 그녀의 일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자 그는 그녀를 달리 보게 된다.

이렇듯 그는 시골에서, 그간 게을러서 청소하지 않았던 낡은 생각들<sup>2)</sup>을 전환시킬 계기를 얻는 듯이 보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가 그렇게도 거부하던

‘자아의 도덕적 향상’내지 ‘자아 개선’이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자아의 힘을 비축하려는 그의 희망, 독자가 기대하는 그의 변화는 루씨의 강간 사건으로 처참히 무너진다.

루씨의 강간 사건은 그의 삶을 수치의 삶으로 만들어버린다. 사실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한다는 설정은 그간 백인중심적 이데올로기에서 강조한 흑인 해악서사(black peril narrative)의 주장<sup>3)</sup>을 그대로 실현해서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설정은 “남아공의 최악의 악몽이자 끌리세를 되풀이한다”는 비난을 받기 쉽다(Carine Mardrossian 73). 게다가 루씨같이 흑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온 진보적인 여성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닥친다는 것은 더욱더 흑인의 잔혹함, 무자비함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인생의 무서운 아이러니를 나타내는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건은 루씨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루씨 옆에서 그 여과를 같이 경험하는 루리에게 더욱더 윤리적 시험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강간에 대한 루리의 시각과 대처방식은 전형적인 백인남성 가부장의 관점을 드러낸다. 그간 그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로서 흑인이나 여성에 대해 명확히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강간이라는 일종의 극한 상황 앞에서 그는 자신이 가져 온 구세대적 낡은 생각을 가감 없이 노출시킨다. 우선 여성에 대한 그의 보수적인 관점은 강간 사건 이후 루씨를 수치의 프레임 속에서 바라보는 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는 흑인 남자에게 범해진 루씨의 몸을 ‘수치’(shame)와 ‘오염’(pollution, soil)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루씨가 자신의 강간에 대해 침묵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루씨가 시장에 나가지 않는 것도 ‘부끄러워 얼굴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 해석한다. 그는 “자신만만하고 현대적인 젊은 여자”(confident, modern young woman 115)인 루씨를 이렇게 수치와 치욕의 상태에 빠뜨려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침입자들이 이룬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하기를 “여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루씨를 둔 것이라고 한다(115). 또 침입자들의 성폭행이 규범에서 벗어난 동성애적 성향에 대한 차별일 수

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루리는 또 루씨의 강간에 대해 자신의 성추문 사건 때보다 훨씬 더 괴로워한다. 그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가 루씨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루씨를 위협에서 구해내기에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한다.

그는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안다. 프랑스어도 할 줄 안다. 하지만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가 가장 어두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를 구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무기력하다...

He speaks Italian, he speaks French, but Italian and French will not save him here in darkest Africa. He is helpless ... (95)

그의 무력감에 대한 다음과 같은 토로는 그의 자아가 이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어제의 사건이 그의 깊숙한 곳까지 충격을 주었다. 떨림과 나약함은 그 충격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피상적인 징후에 불과했다. 그의 내부의 장기가 멍들고 능욕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심지어 그의 심장까지도. 그는 처음으로 나이가 들어 뺏속까지 피곤하고 아무 희망도 없고 욕망도 없이 미래에 무관심한 채 지난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느낌을 알게 되었다.

The events of yesterday have shocked him to the depths. The trembling, the weakness are only the first and most superficial signs of that shock. He has a sense that, inside him, a vital organ has been bruised, abused - perhaps even his heart. For the first time he has a taste of what it will be like to be an old man, tired to the bone, without hopes, without desires, indifferent to the future. (107)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남성가부장으로서의 자신의 무력감을

뜻하는 수치스러운 일이기에 그의 남성적 자아에 그토록 상처를 준다. 그는 딸의 삶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남겨두고 남아공을 떠날 것을 권유한다. 이것도 수치 감정의 전형적인 태도 중 하나이다.

그런데 그의 수치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루시가 강간으로 임신하게 된 아이를 낳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흑인 농부인 페트루스(Petrus)의 세 번째 부인으로 그의 보호 하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그의 수치심과 분노와 절망은 극에 달한다. 그는 딸의 몸에 있는 아이를 “그녀를 오염시키기 위해”(meant to soil her) “개의 오줌처럼”(like a dog’s urine 199) 뿌려진 씨, 사랑이 아니라 증오 속에서 “무질서 상태로 섞인”(mixed chaotically 199)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의 이런 격앙된 반응은 물론 루시 같이 강간당해 임신한 딸을 둔 아버지라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녀를 ‘오염’시킨다는 표현, “무질서 상태로 섞인” “개의 오줌처럼” 뿌려진 씨라는 표현은, 강간범이 흑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다. 이어서 그는 아들이 없이 자신의 가계가 끊긴다는 사실에 비탄을 금치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습은 그가 이 상황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기는지, 그의 자존감이 그로 인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느끼게 되는 대목이다.

또 루씨가 페트루스의 보호 하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딸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그의 무력감과 연결되어 있다. 루씨는 자신이 페트루스의 보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자신에게는 남자 형제도 없고, 아버지는 있으나 자기 조건에서는 실질적으로 “무력”(powerless 204)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루씨는 자신을 만류하는 아버지에게, “이 시대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안내자가 되지 못하는”(You are not the guide I need, not at this time 161) 아버지의 무능을 이야기한다.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딸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 강간에 의해 수태된 아이를 낳겠다는 루씨의 결정으로 백인 혈통의 가계가 끊어지게 된 상황, 루씨의 도움으로 루씨 농장에서 일꾼으로 출발했으나 시대의 변화 속에서 흑인 가부장으로 새로 힘을 얻어가는 페트루스의 세 번째 부인으로 루씨가 들어가겠다고 한 결정 등은 백인 가부장으로서의 그의 자아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수치의 감정을 그에게 준다. 그런데 이에

더해 마지막으로 최후의 일격처럼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흑인 강간범 소년이 자신의 딸의 몸을 탐하는 장면을 목도한 사건이다.

폴릭스(Pollux)라는 이름을 가진 그 흑인 강간범 소년은 결국 페트러스의 아내쪽 친척임이 드러나 페트러스의 보호 하에 같이 살게 되는 인물이다. 강간에 가담한 이와 근접한 거리에 같이 있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그가 목욕하는 루씨의 몸을 훑쳐보는 장면은 그야말로 그로서는 견디기 힘든 모욕적인 일이다. 이 일을 목격할 때, 그는 전형적인 백인 가부장의 시선으로 반응한다. 그는 자신이 일생 피해왔던 생각을 여기서 처음 하게 되는 데 그것은 노골적으로 흑인 차별적인 생각이다. “흑인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 줘라”(Teach him a lesson, Show him his place 206)라는 생각이 맞는 말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폴릭스를 일컬어 “잡초”(a weed 209)라 하면서 감히 백인 여성의 몸을 넘보는 그를 “오만(insolence 209) 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의 감정의 폭발은 흑인 소년을 벌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루씨와 감정적으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그 소년이 아니라 그가 그 집을 나가는 것으로 귀결된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그는 폴릭스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끼며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When he thinks of the boy and his threats, he seethes with anger. At the same time, he is ashamed of himself. He condemns himself absolutely. He has taught no one a lesson - certainly not the boy. All he has done is to estrange himself further from Lucy. (208)

그 애와 그 아이의 위협을 생각할 때면 그는 분노로 들끓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해 수치스러웠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극도로 비난했다. 아무에게도 본때를 보여 주지 못했다. 분명 그 아이에게 그러지 못했다. 그가 한 것이라곤 루씨와 더 멀어지게 한 것이 다였다.

결국 그가 자신에 대해 수치를 느끼는 것은 “아무에게도 본때를 보여주지 못한” 자

신의 무력감, 딸의 몸을 넘보는 위협을 하는 흑인 남자의 욕망을 저지하지 못한 무력감, 현실에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의 무력감 때문이다.

#### IV. 수치를 넘어서는 힘

루리는 자신이 겪는 모멸감과 수치에 대해 그것이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이런 생각은 작품 속에서 두 번 언급된다. 한번은 멜라니의 집을 방문해서 그녀의 아버지인 아이삭스 씨(Mr. Isaacs)에게 사과하면서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루씨의 집을 나오게 된 경위를 베브에게 말하면서 혼자 하는 생각이다. 그는 아이삭스 씨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멜라니와의 사건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 벌로 “치욕(disgrace 172) 상태에 빠져 있으며, 자신은 그것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다. 즉 “치욕을 존재 상태로 받아들여려고 노력하면서”(trying to accept disgrace as my state of being 172) 자신의 벌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베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그는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할 때 문득 “연옥(Infemo 209)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분노에 사로잡혀 서로를 향해 물어뜯는 모습이 바로 그것인데, 그는 그 이미지를 설명하면서 “죄에 합당한 벌”(A punishment fitted for the crime 210)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그가 작품의 말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루씨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있고, 수치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냉소적이던 태도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져 있다. 가령 그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던 루씨의 삶을 견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딸의 배 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도 “이 땅의 아이”(a child of this earth 216)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며, 자신의 가계가 엷어져서 마침내 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분노와 절망의 감정이 없다. 또 지극히 변화를 싫어하며, 자신의 기질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전혀 바뀔 의향이 없던 그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라고 권유하는 루

씨의 말에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두운 시대에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그는 어떻게 이런 시각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사실 작품 속에서 그의 이런 변화는 너무 뒷부분에서, 그것도 매우 간략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얼핏 읽어서는 이 변화를 감지하기 쉽지 않다. 그의 절망과 노여움과 수치심이 한껏 휘몰아쳐서 그 감정의 여운이 아직도 독자의 뇌리에 남아있는데, 어느덧 그 감정의 폭풍이 가라앉고 차분하고 긍정적인 어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변화를 이끈 존재는 딸 루씨와 동물복지 클리닉을 운영하는 베브이다. 루씨는 루리가 부과하는 수치의 프레임을 뛰어넘는 관점과 태도, 개인과 자아를 넘어서는 역사적 관점을 견지하는 태도, 백인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그의 관습적 사고를 넘어서는 태도를 통해 루리로 하여금 그의 오류를 뒤돌아보게 하고,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한다. 루씨는 강간당한 자신의 몸을 ‘수치스러운 것’, ‘숨기고 침묵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가 자신의 강간 사건에 침묵하는 이유는 그것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남아공의 역사적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사건이 자칫 흑인해악서사의 유통에 기여해서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하는 흑백평등의 세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사건을 전적으로 ‘개인적인 일’로 안고 간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이전의 흑독한 인종차별역사의 대가, 특권층으로서 기득권을 누려온 자신이 보상해야 할 빚으로 해석한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자신을 사건의 피해자의 위치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지는 주체의 위치에 둔다. 그리고 루씨는 흑백의 인종관계를 승자/패자의 이분법적 대립관계로 보는 루리와 달리, 함께 협상하고 공존해야 할 존재로 본다. 또 루씨는 강간 사건을 인종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루리로 하여금 남녀간의 성적 관계에 내포된 남성중심적 욕망의 폭력성을 바라보게 한다. 남성의 일방적인 욕망 충족으로 인해 여성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남성중심적인 그는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 남성이 관습적으로 행해 온 성적 행동이 상대방 여성에게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언급함으로써 루리로 하여금 멜라니와의 관계를 뒤돌아보게 한다. 그가 욕망의 이름



으로 정당화한 성적 행동이 강간과 같은 고통을 줄 수 있음을 그는 깨닫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루씨가 당한 강간은 중립적으로 제시된 멜라니의 강간 사건을 되비추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루씨는 또 변화한 현실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자는 백인인 아버지가 아니라, 흑인 페트러스임을 그에게 명확히 주시시킨다. 말하자면 변화된 인종 관계의 현실, 그 속에서 무력한 그의 위치를 그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병들거나 쓸모없어진 동물을 편안하게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여사제”(a priestess 84)로 일컬어지는 베브는 윤영필의 지적처럼 “이 작품의 윤리적 지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314) 인물이다. 그 곳의 형편을 잘 아는 균형 잡힌 시각을 대변하는 그녀는 루리가 페트러스에 대해 가진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의식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페트러스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루리에게 페트러스는 “괜찮은 사람”(a good old chap 198)이라는 것, 루씨가 그간 정착하는 데 빛을 많이 진 사람이고, 앞으로도 루씨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인식시켜준다<sup>4)</sup>. 루씨 일에 그가 그렇게 개입하지 않아도 루씨 스스로 자기 삶을 잘 꾸려갈 것이며, 루씨가 처한 현실이 그리 위태로운 상황이 아님을 그녀는 확신시켜 준다. 삶과 사물을 바라보는 그녀의 현명하고 공평한 판단, 그리고 그녀의 실천적인 삶을 미루어볼 때 그녀의 말은 루리는 물론이고 이 소설의 독자들에게도 신뢰를 준다.

베브의 무엇보다 큰 영향은 그로 하여금 존재의 의미와 존재에 대한 사랑의 방식을 알게 한 점이다. 그는 다치거나 병들어서 주인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안락사를 위해 맡겨진 동물들을 베브가 다루는 방식을 보면서, 다음 두 가지를 배운다. 하나는 무가치하고 죽음 밖에 남은 게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모든 존재는 그 고통에 대해 위로받을 권리가 있으며, 죽음은 공감과 존중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동물들을 죽음으로 인도할 때 베브가 보이는 태도를 통해, 사랑이란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내어줌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루씨와 베브가 그에게 끼친 영향은 그의 창작 과정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 읽어낼 수 있다. 루씨의 강간 사건을 겪으면서 남성 욕망의 폭력성에 새롭게 눈을 뜬 그는

멜라니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문학적 영웅인 바이런 역시도 “강간이라 할 만한 일을 많이 했다”(159)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후 그가 바이런이 아니라 그의 연인 테레사(Teresa)에게 초점을 두고 작품을 구상하는 것은 그의 이런 인식의 변화와 관계있다. 그리고 베브는 루리로 하여금 테레사의 형상화를 바꾸게 할 만큼 그렇게 큰 존재감을 지닌 인물이다. 아름답고 전성기의 테레사가 아니라 중년의 땅딸막한 테레사는 베브의 외모와 나이를 투영하고 있다. 그리고 테레사의 모습에는 베브 뿐 아니라, 루리 자신의 삶의 경험도 투영되어 있다. 삶의 절정기가 지나있고,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없으며, 단조롭고 지루한 지방의 소도시에서 역정을 잘 내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테레사,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며 천식에 시달리며 오직 “불멸의 갈망”(immortal longing 214)을 통해 구원되기를 바라는 테레사는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작품에 매달리며 그녀를 형상화하고자 하며, 그녀에게서 마지막 구원을 기대한다(Teresa may be the last one left who can save him 209). 그런데 그가 그녀의 형상화에 실패하며 그 스스로 이를 자인한다는 것은 테레사와 바이런의 사랑, 불멸의 갈망이 그가 놓인 현실에서 의미를 가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의 이런 인식은 끝까지 “감각의 향연”(the sweet banquet of the senses 24)에 매달리는 ‘욕망하는 인간’으로서의 그의 존재방식이 변화한 현실에서 맞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작품의 1장에서 그는 자신의 기질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의 기질은 너무나 확고하게 정해져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기질을 변화시키기에 자신은 너무 늙었다는 것이다. 작품 곳곳에 변화에 대한 그의 저항감이 표현되어 있고, 그것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의 23장까지 표현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기엔 너무 늙었고, 변화하기에 너무 늙었다”(209)고 시종 일관 말해왔다.

그러나 그의 변화가 나타나는 23장 후반부부터 24장까지, 그의 말에는 “배우다”(learn 218), “교육하다”(educate 210), “가르침”(a lesson 210)이란 단어들 이 등장한다. 그는 빅토르 위고에게 욕망이 지나간 뒤의 노년의 삶을 배우겠다고 하며(218), 루씨가 농장에서 일하는 광경에서 견고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위즈워드 전공자였던 자신에게 농촌생활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없었다고 느끼면서, 자신의 눈을 “교화”(educate 218)하겠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베브를 통해 “사랑이라는 적절한 이름으로 부르기에 어렵지 않은 것.” 즉 “그의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219) 태도를 배웠다고 말한다.

배우겠다는 자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낡은 생각과 특권에 익숙해 있는 자신의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그가 새롭게 익히는 것은 남성적 욕망, 부권의 권리, 소유자의 권리를 넘어선 어떤 태도, 루씨와의 새로운 관계에서 언급된 “방문자적 태도”(visitorship 218), 죽어가는 개들에게도 온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랑의 태도이다. 이런 태도야말로 그로 하여금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태도이다.

## V. 나가며

더렉 애트리지(Derek Attridge)에 의하면 이 소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문학성을 인정받았지만 자국 내의 비평가들로부터는 우려와 의혹의 시선들을 받았다고 한다(164). 자극적이면서도 암울하게 재현된 새 공화국의 모습이 “정의와 평화를 향해 거대한 걸음을 댄 사회”(164)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려의 주된 내용이었다. 백인특권층의 남성 주인공이 변화한 인종관계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울분을 터뜨리기만 한다면, 새 국가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작가는 남성주인공으로 하여금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그의 이 변화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더욱 명확하게 감지될 수 있었다. 작품에서 그가 경험하는 수치심은 특권적인 백인남성가부장으로서의 그의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자아에 대한 가치부정에서 나오는 감정인 수치심은 그가 자신의 특권적 위치를 잃었을 때 경험되고 있다. 즉 흑인의 욕망으로부터 백인 딸을

보호하는 가부장으로서의 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는 가장 수치를 느낀다. 그리고 딸이 흑인 남성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는 관습적인 방식으로 딸의 강간 경험을 수치의 경험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루리가 부과하는 수치의 프레임을 뛰어넘는 관점과 태도를 가진 딸, 개인과 자아를 넘어서는 역사적 관점 속에서 변화한 흑백관계를 바라보는 딸, 남녀 간의 성적 관계에서 남성의 일방적인 욕망이 가지는 폭력적 성격을 지적하는 딸을 통해 루리는 변화를 경험한다. 그는 가부장의 위치의 상실, 욕망의 상실을 수치로 경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베브를 통해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 병들고 쓸모없이 보이는 존재들도 위로와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런 식으로 소유와 특권을 넘어서는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용은 그로 하여금 수치심과 분노와 냉소의 감정을 넘어서게 한다. 결국 이런 내면의 변화와 삶의 긍정은 변화한 남아공의 미래에 대한 작가의 긍정을 시사한다고 본다.

## Notes

- 1) 이 장면에서 그는 멜라니의 욕구와 동의가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강압적으로 그녀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강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그의 의식은 그것이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젠더 관점에서 이 소설을 분석하는 비평가들은, 이 장면이 강간을 자연스러운 성관계로 보이도록 서술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문제점은 강간을 재현하는 서구 문화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한다. Carine M. Mardrossian, "Rape and the Violence of Representation in J. M. Coetzee's *Disgrace*."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42.4 (Winter 2011), p. 79 참조.
- 2) 그는 앞에서 자기 마음을 일컬어,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게으르고 부족한 낡은 생각의 피난처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아내고 청소해야만 하는데 그냥 내버려둔다는 말을 한 바 있다(His mind has become a refuse for old thoughts, idle, indigent, with nowhere else to go. He ought to chase them out, sweep the premises clean. But he does not care to do so, or does not care enough.) p. 72.
- 3)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디어는 흑인남성이 백인여성을 강간한 것에 대해 자극적으로 다루면서 흑인 남성의 위험성(peril)을 강조했고, 이로 인해 남아공에서 흑인들에 대한 억압적인 법적 조처들이 내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Lucy V. Graham, "Reading the unspeakable: Rapes in J. M. Coetzee's *Disgrace*."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29.2 (June 2003) p. 435 참조.
- 4) 율영필에 의하면 페트러스는 "남아공의 새로운 역사적 현실에 부합하는 건실한 흑인농부의 전형"이다(314).

## 인 용 문 헌

- 윤영필. 「평화의 공동체를 향하여: J. M. 콧시의 『치욕』 과 타자성의 윤리」. 『외국문학연구』 57 (2015): 295-318. Print.
- 이명호. 「아우슈비츠의 수치-프리모 레비의 증언록」. 『감정의 지도 그리기: 근대/후기 근대의 문학과 감정 읽기』 서울: 소명출판사. 2015. 268-93. Print.
- 황정아. 「너무 ‘적은’ 정치와 너무 ‘많은’ 윤리」. 『현대영미소설』 14.2 (2007): 179-98. Print.
- 지그문트 바우만.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홍지수 옮김. 서울: 봄아필. 2013. Print.
- 찰스 테일러. 『불안한 현대사회』. 송영배 옮김. 서울: 이학사. 2001. Print.
- Attridge, Derek. *J. M. Coetzee and the Ethics of Reading*. Chicago: The U of Chicago P, 2004. Print.
- Bewes, Timothy. *The Event of Postcolonial Shame*. Princeton: Princeton UP, 2011. Print.
- Bouson, J. Brooks. *Embodied Shame: Uncovering Female Shame in Contemporary Women's Writings*. Albany: State U of New York P, 2009. Print.
- Coetzee, J.M. *Disgrace*. London: Vintage, 1999. Print.
- Graham, Lucy V. "Reading the Unspeakable: Rape in J. M. Coetzee's *Disgrace*."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29.2 (2003): 433-44. Print.
- Johnson, Erica L., and Patricia Moran, eds. *The Female Face of Shame*. Bloomington: Indiana UP, 2013. Print.
- Just, Daniel. "From Guilt to Shame: Albert Camus and Literature's Ethical Response to Politics." *MLN* 125.4 French Issue: Flaubert (September 2010): 895-912. Print.

Kosofsky, Eve, and Adam Frank, eds. *Shame and Its Sisters: A Silvan Tomkins Reader*. Durham: Duke UP, 1995. Print.

Kossew, Sue. "The Politics of Shame and Redemption in J.M. Coetzee's *Disgrace*." *Research in African Studies* 34.2 (2003): 155-62. Print.

Mardorossian, Carine M. "Rape and the Violence of Representation in J.M. Coetzee's *Disgrace*." *Research in African Studies* 42.4 Print.

McDonald, Peter D. "Disgrace Effects." *Interventions* 4.3 (2002): 321-30. Print.

## Abstract

### J. M. Coetzee's *Disgrace* Through the Frame of Shame

Kim, Youngmee (Kyung-in Women's Univ.)

Lee, Myungho (Kyung hee Univ.)

This study attempts, in the frame of shame, to analyze the experiences of David Lurie, a white intelligent man in a post-apartheid South African society, whose life J.M. Coetzee depicts as disgraceful in his *Disgrace*. The feeling of shame is regarded as very agitating and harmful to one's ego states because it is based on self doubt and self degradation. In this frame of shame, it is possible to see Lurie's inner changes more clearly. His shame is closely related with losing his own white patriarchal power in the post-apartheid South African reality. His most shameful experience is not his sexual scandal at his university but his daughter's rape and her later decision to give birth to a mixed baby as its aftermath and become the third wife of Petrus, who came to be considered a new black patriarch in a new society. He suffers lots of shame in a changing racial relationship and undergoes powerlessness in this society. At the end of the novel, however, his feelings, attitudes, and viewpoints about himself, his daughter, and their new life are much changing. He is more positive, with his feeling of shame replaced by love. He comes to be beyond patriarchal right, ownership, and ego centric sexual desire, showing all attentions and kindness to other existences thanks to his daughter Lucy and other female character Bev.

**Key Words:** Coetzee, *Disgrace*, a post-apartheid South African society, shame, white patriarchal power

논문접수일: 2016.01.16

심사완료일: 2016.02.01

게재확정일: 2016.02.05

이름: 김영미 (제1저자)

소속: 경인여자대학교

주소: (2104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63 (계산동, 경인여자대학교)

이메일: kymays22@daum.net

이름: 이명호 (교신저자)

소속: 경희대학교

주소: (0245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4 (회기동, 경희대학교)

이메일: mhlee@khu.ac.kr